

#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제 20** 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환경의 날은 그 규모면이나 내용면 두루, 대단히 백적지근하게 치뤄졌다고 할 수 있다.

환경처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세계환경의 날을 치뤄오다가, 일약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했고, 많은 환경관련 단체는 물론, 일반 사회단체 까지도 이날을 기리고, 심지어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 특히 거물급 기업체 모임에서도 환경보호를 부르짖고 나서는 등, 대단했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환경이 보호될 것 같이 보이지만, 작심 몇 일이나 걸려지 두고 볼 일이다.

각설하고, 이번 제 2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환경의 날, 국내 톱은 아무래도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그 어느 국가가 이렇게 대단한 환경보호 의지를 표명했는가?

이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모든 정책에 환경보호가 우선적으로 대입될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선언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 제일주의 국가로 매진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두고 볼 일이다.

“자연은 인간존재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시작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은 선언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대단한 환경보호 국가가 될, 아니 되고 싶지 않아도 되지 않을 수 없는 백적지근한 선언이다.

선언은 나무랄데 없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는 관

료적인 선언으로는 감동적이기 까지 하다. 그러나 환경보호가 선언으로 보호되고 더구나 관료적 요식행위로 보호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번 선언은 또 한번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첫째, 너무 완벽한 내용을 찾다 보니, 알맹이 없는 美辭麗句가 되었다.

둘째, 너무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선언문안이 되었다.

셋째,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이며, 절실한 당위가 없다.

넷째, 추상적인 개념과 문장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외면되고 있다.

다섯째, 내용이 어렵고 문장이 딱딱해, 친절하지 못하다.

이 외에도 많은 옥에 티가 보이지만, 일본의 것을 표절한 <자연보호헌장>과 같이, 남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싶다. 조금, <UN 인간환경선언문>의 뉴앙스는 풍기지만.....

## <전문>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

# 선언

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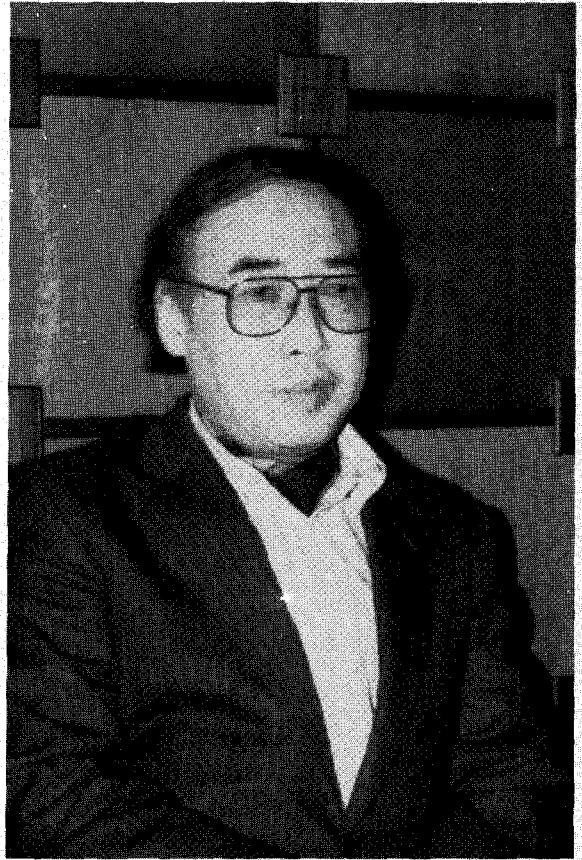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한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애써 골라서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좀더 부드러울 수는 없었는지? 좀 더 친절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인간존재의 모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이 위협을 극복” “급속히 진전되어 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물고을 재앙” “슬기를 총집결하고” “겨레의 의지로” 등 문장의 용어 선택이 너무 고답스럽고, 수사, 수식이 공문서적이며, 어려운 말로 유식해 보이려 애쓴 흔적이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선언은 나무랄데 없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는 관료적인 선언으로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환경보호가 선언으로 보호되고 더구나 관료적 요식행위로 보호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번 선언은 또 한번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왜? 편안하게 읽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을 만들지 못했는지?

아래의 환경보전 기본원칙도 어렵고 딱딱하고, 불친절하기는 매 한가지다. 밑줄 친 부분이 그러하면, 다른 쉽고 친절할 말로 표현했었다면 더 전달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보전 기본원칙**

“1.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틀린 말은 아니나, 대단히 어려운 상투적인 말이다)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과 정부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창출이라는 표현은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공문서 문안이다)앞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3.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원적으로(왜, 이토록 어렵게 표현하는가?)예방하는 계획과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환경행정 체제하에 관계부처간의 효과적인 상호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우선의 시각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그럴듯한 문장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다)위해 이미 훼손된 자연자원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말 뿐이어서는 안된다)이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확립하고(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혔어야 한다)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6. 기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칙적으로 막기 위한(더 부드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사회적 책

입과 의무를 진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 기업인은 즉각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이러한 실천이 기업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7. 산업활동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는데 있다. 따라서 생산으로 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생활적인 측면의 문장이여야 한다)우리의 산업구조를 자원이 절약되는 형태로 하루바빠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8. 정부와 기업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가 실제에 응용되도록(좀더 구체적이어야 한다)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모든 과학기술은 그 실용에 앞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9.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은 공정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공정의 기준과 전개할 것이며 라는 뜻이 강요인지? 기대인지? 모르겠다)정부는 이를 최대한(적극이어야 한다)지원하여야 한다.

10. 국민 각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건전한 소비풍토를 확립해야 하며, (관료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소비는 정부의 예산책정과 집행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하여야(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투적인 말이다)한다.

11. 우리 모두는 지구촌의 일원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펼쳐는 노력에 우리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2. 우리는 이제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다)정신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어떤 정신생활인가 제시되었어야 한다)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개념과(성장개념은 이런 때, 쓰지 않는다)마음가짐을 정착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13. 이와 같은 **제반노력**을(과상적인 용어다) 우리의 윤리규범(전문에서도 이 용어가 쓰였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 같이 보이나,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조어다)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야 한다.

14. 앞에서 **천명한**(이런 단어를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환경보전과 **창조의 기본원칙**(몇 사람이나 그 말 뜻을 알아 들을까)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 장기 종합대책의 수립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하여야(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 안되는가?)한다.

우리 모두는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필자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문학자

가 있고, 문장을 올바르게, 쉽게 친절하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쓰는 시인과 작가도 많다. 아니 환경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환경체에 출입하는 기자도 있고, 열 손가락을 넘는 환경언론사도 있다. 왜 그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는가?

몇몇 사람이 앉아, 이말 저말 좋은 말을 찾아, 짜집기 한 것이 한나라의 선언문이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선언문은 이런 상투적이며 관료적인 문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더욱 안된다.

한번, 선언하면 그것을 없애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는 것이 국가선언문이다. 그런 중요한 선언문을 너무, 안이하게 어려운 말만 골라서 만든 것은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뭘 만들려면 제대로 알고, 똑똑히 만들어야 하겠다.

(筆者: 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